kotra
Korea Trade-Investment Promotion Agency

워싱턴무역관

U.S. Daily Briefing

2022.9.13.(화) 제22-66호

문의 : 워싱턴무역관 조사팀(joonlee@kotra.or.kr)

◈ [Focus]
- (IPEF) 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 반응

◈ [What's News]
- (미국생산확대) '생명공학·바이오 제조 혁신 이니셔티브' 행정명령 주요 내용
- (대중견제) 상무부,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수출 규제 명문화 추진
- (공급망) 철도 파업 가시화로 인한 공급 피해 증가 우려
- (CPI)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
- (기후변화) 탄소 포집 신기술에 관한 관심 증대

Focus

(IPEF) IPEF 9월 장관회의 세부 내용 및 현지 반응

1. 회의 개요

□ **인도·태평양 경제프레임워크(IPEF) 장관회의 개최(9.8~9일)**

○ IPEF는 '22.5.23일 출범한 **미국 주도의 인도·태평양 경제협의체**로 미국은 중국 영향력 견제를 위한 참여국 협력 확대 독려

○ 미국 로스앤젤레스에서 이틀간 진행된 회의에 **총 14개국 관료 참여**

- 참여국 : 미국, 한국, 일본, 호주, 뉴질랜드, 말레이시아, 인도, 인도네시아, 싱가포르, 필리핀, 태국, 베트남, 브루나이, 피지

○ 회의 종료 후 공동합의문을 통해 협의 안건을 공개

- **4개 주요 의제(Pillar)**에 대한 공동 정책 방향을 담은 **각료선언문 채택**을 합의했으며, 참여국 간 최종적인 세부 내용 조율은 **'23년 11월**까지 이어질 전망

2. 세부 내용

□ **IPEF 주요 의제는 (1) 무역, (2) 공급망, (3) 청정 경제, (4) 공정 경제**

○ **(무역)** 다양한 무역 규범 정립과 협력 의제 논의

- 국제 노동 규범 준수, 친환경·저탄소 교역 강화, 디지털 교역 활성화, 식량안보 대응 및 농업 기술혁신, 통관절차 개선, 공정경쟁 기틀 마련, 무역원활화, 포용성 강화, 기술·경제 협력 등을 과제로 선정

* **인도 정부는 자국 노동·환경 정책 보호를 이유로 무역 관련 조항 참여를 거부**

○ **(공급망)** 국제 공급망 병목현상 해결 및 안정화 협력

- 핵심 분야·품목 선정 기준 합의, 핵심 분야·품목의 탄력성 투자 확대, 공급망 위기 대응을 위한 정보공유·조기경보 공조 체계 마련, 공급망 내 운송경로 원활화, 공급망 내 노동권 증진

○ **(청정 경제)** 파리협정 기반 기후변화 공동 대응 강화

- 에너지 안보 협력 및 전환 필요성 강조, 온실가스 배출 감축, 청정에너지 기술 개발, 토양·수질·해양 보존 강화, 청정에너지 전환 인센티브 논의

○ **(공정 경제)** 교역·투자 확대를 위한 공정한 경제 환경 조성 노력

- 반부패 협약 이행, 조세 투명성 강화, 공정성 강화 기술·정책 교류, 민간 기관의 감독·정보교류 허용

3. 현지 반응 및 전망

□ **인도의 무역 의제 불참 논란 진화**

○ 미국 관료들은 **인도의 무역 의제 불참을 '참여국 권리 보장 사례'로 언급**

- 현지 언론은 인도의 무역 의제 불참에 대해 아쉬움을 표했지만, **이외 분야에서 이탈 없는 합의안**이 도출된 사실은 **긍정적**으로 평가

- 최근 **인도**는 러시아산 석유 수입 제한 등 **미국이 주도하는 국제 정책 참여도가 낮아**, 중·러 정책 효율성 제고를 위해 협력 인센티브 발굴 노력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존재

□ **행정협정**(executive agreement) **형식 선호**

○ 사라 비앙키 미국 무역대표부 부대표는 참여국들이 **행정협정 형식의 IPEF 추진에 대해 공감대를 형성**한 것으로 언급

- 미국 의회 승인 과정 생략이 IPEF 합의 내용에 대한 의회 승인 여부의 불확실성을 제거하고 합의 완료 시점을 앞당길 것으로 기대

□ **글로벌 혁신 포럼**(GIF), **중소기업에 대한 IPEF 영향을 긍정 평가**

○ IPEF는 **중소기업이 직면한 5대 수출 장벽을 완화**할 가능성이 큼

- 무역원활화와 통관절차 개선이 (1) 관세·통관절차, (2) 면허·규제 불확실성, (3) 운송 비용, (4) 해외 고객과 커뮤니케이션 부족, (5) 마케팅 정보 부족을 개선할 것으로 전망

- 개인정보 보호, 면허 취득 절차 간소화, 일관된 데이터 전송 규칙, 법률·규정에 대한 투명성 강화가 **미국-인·태 중소기업 간 디지털 거래를 활성화할 것으로 전망**

□ **한국은 반도체·배터리 공급망 수혜 전망**

○ IPEF 내 자원 부국과 기술 보유국이 참여하고 있어 **첨단산업 공급망 탄력성은 강화**될 전망

- 공급망 의제에 포함된 '유사시 참여국 간 재고 교환 방안'은 국내 산업계의 **공급망 다변화·안정화에 도움**이 될 전망

□ **향후 일정 전망**

○ 돈 패럴 호주 통상부 장관은 올해 11월 원격 장관급 회의 소집 가능성을 언급했으며, **'23년 1월 대면 회의가 있을 것**으로 전망

* 자료 : 인사이드트레이드(9.11), 무역대표부 보도자료 등

□ [미국생산확대] '생명공학·바이오 제조 혁신 이니셔티브' 행정명령 주요 내용

○ 백악관은 **첨단 바이오 기술 및 제조 혁신을 위한 행정명령** 발표(9.12)

- 향후 10년 이내 30조 달러 규모로 성장할 바이오 시장에서 미국의 산업·기술 경쟁력 확보가 주목적
- 상대적으로 높은 미국의 기술 경쟁력에도 불구, **화학 및 원료 의약품의 수입의존도, 바이오 제조 역량의 열위가 문제**로 지적

○ 행정명령을 통해 다음과 같은 바이오산업 육성 정책 제시

- (1) 미국 내 **바이오 제조 역량 강화**
- (2) 바이오 관련 제품에 시장 기회 확대
- (3) 핵심 기술 개발을 위한 정부 지원 강화
- (4) 바이오산업 전반에 대한 정부 데이터 축적 및 접근성 제고
- (5) 인재 육성 및 교육 지원 강화
- (6) 바이오 기술 제품 관련 규제 간소화
- (7) 기술·사이버 보안 강화 등을 통한 산업 생태계 보호
- (8) 우방·파트너 국가 연대 강화를 통한 바이오산업 부흥 추진

○ 해당 정책 집행은 백악관 안보 보좌관, 경제 보좌관, 과학기술 정책관이 주관하여 관계 부처 간 협력 조율 예정

- 백악관은 **9.14(수)에 국가 바이오 기술·제조 정책 최고 회의**를 열고, 관련 부처별 투자 및 지원 계획 등을 공개할 예정

* 자료 : 백악관 홈페이지(9.12)

□ (대중견제) 상무부, 첨단 반도체 및 제조 장비 수출 규제 명문화 추진

○ 지금까지 개별 기업 통보 방식으로 진행된 **14나노미터 이하 반도체 생산 장비의 대중 수출 규제**는 **10월 내 강화**될 전망

- 현지 전문가는 **상무부의 규제 명문화 추진 노력**은 특정 기업보다 관련 **기술 업계 전반을 규제**하기 위한 **초석** 마련으로 평가
- 또한, 이후 관련 기술을 개발할 후발주자에 대해서도 **자동으로 구속력을 확보**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는 노력으로 분석

○ 로이터 통신의 인터뷰에 응한 익명의 관계자는 최근 수출이 규제된 **인공지능용 반도체도 규제 항목에 포함**될 **가능성**이 크다고 언급

- 상무부는 NVIDIA와 AMD의 인공지능·머신러닝용 반도체의 중국 수출을 국가안보를 이유로 규제(8.31)

○ **첨단 반도체가 포함**된 **제품·서비스도 규제 대상이 될 가능성** 존재

- 더 힐(The Hill)은 첨단 반도체를 이용해 생산되거나 구축된 슈퍼컴퓨터, 데이터 서버 등 최종 제품·서비스에까지 규제가 확대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현지 관계자 인터뷰를 보도

* 자료 : 로이터(9.11), 더 힐(9.12)

□ (공급망) 철도 파업 가시화로 인한 공급 피해 증가 우려

○ 금요일(9.16)부터 첫 파업이 시작되면서 **철도 운송이 중단될 가능성** 상존

- 정부에서 지정한 60일 조정 기간 이후에도 노·사간 협의가 지속해서 실패하자, **철도 운송업체는 9.16 파업 가능성을 크게 평가**해 **월요일(9.12)부터 암모니아 운송을 중단**
- 파업이 발생할 경우, **비료에 필수적인 암모니아 운송에 차질**이 생기며 이미 공급에 어려움을 겪던 **농가에 추가 부담이 될 전망**

* 암모니아 공급망은 코로나19와 러·우 분쟁으로 인해 악화

- 미 의회는 파업을 막을 실질적인 권한은 없으나, 추가적인 조정 기간을 권고하거나 노사 측에 새로운 방안 제시를 권유하며 상황을 완화할 전망

* 자료 : 폴리티코(9.13)

□ [CPI] 8월 소비자물가지수 발표에 따른 시장 반응

○ 미 노동부, **소비자물가지수(CPI)와 근원물가지수(Core CPI) 발표**

- **8월 CPI는** 전년 대비 8.3%포인트(p) 인상됐으나, 6월(9.1%p), 7월(8.5%p)에 비해 **인상 폭 감소**
- 유가 하락에 따른 소비자 구매력 상승이 6월 최고점 이후 2개월 연속 하락세 요인으로 분석됨.

○ 식품·유가를 제외한 **근원물가지수(Core CPI)는 전월 대비 0.6%p 상승**

- 미국 내 전체 소비 물가는 전월 대비 0.1% 인상의 상승세를 이어가며 높은 물가상승률 체감은 여전히 존재
- 전문가는 소비자들이 같은 물건을 구매하기 위해 평균 460달러의 추가 지출을 하고 있으며, 이로 인한 소비 감소 위험성을 경고

○ 시장 기대치(8.0%p)보다 높게 보고된 CPI 지수로 인해 **연준이 9월 자이언트 스텝(기준 금리 0.75%p 인상)을 추진할 가능성 증대**

- **금리 인상 가능성**에 따라 **주식시장은 내림세**를 기록했으며, 다우존스, S&P500, 나스닥 모두 평균 3%대의 하락을 기록(9.13, 11시 30분)

* 자료 : 월스트리스저널(9.13)

□ [기후변화] 탄소 포집 신기술에 관한 관심 증대

○ 블룸버그는 **일본 미쓰비시중공업이 개발**한 **탄소포집용 소형 모듈**에 관해 집중 보도

- 지금까지 탄소 포집용 장비는 비용·크기 때문에 중소기업이 구매에 어려움을 겪었으나, **소형화에 성공**하며 **구매 부담이 완화**될 전망

  * 탄소 포집용 장비는 최대 5억 달러

- **탄소포집장비 보급 확대**는 **각국의 탄소 배출량 목표 달성**에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

○ 탄소포집 기술 발전으로 인해 더 많은 미국 기업이 **인플레이션 감축 법안(IRA) 내 탄소 세액 공제 혜택**을 누릴 전망

- 미국 정부가 중소형 공장을 대상으로 한 소형 탄소 포집 모듈 개발에 관심을 가짐에 따라, 향후 미국이 탄소 배출 감축에 적극적으로 참여할 가능성 확대

* 자료 : 블룸버그(9.9)

Notice

□ 금주 주요 경제통상 일정

9.12(화)	美 8월 소비자물가지수(Customer Price Index)
9.15(목)	美 주간실업수당 청구(Initial Jobless Claim)
9.15(목)	美 8월 산업생산지수 (Industrial Production Index)
9.16(금)	미시간 대 소비자 심리지수 (Customer Sentiment Index)

□ 워싱턴무역관 공지사항

- **(자료발간)** 美 연방준비은행 페드나우(Fed Now) 출시 전망 및 시사점(US22-34)
  미국의 전기차 배터리용 핵심 광물 확보 전략(US22-33)
  미리 보는 美의회 중간선거 결과와 관전포인트(US22-32)
 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(IRA) 입법동향 및 주요내용(US22-31)
  미국 반도체 과학법 세부내용 및 시사점(US22-30)
  미국 프렌쇼어링 정책 심층분석과 시사점(US22-기획3)

※ 발간자료는 KOTRA해외시장뉴스 홈페이지(https://dream.kotra.or.kr/kotranews)에서 확인 가능

- **(인터뷰) 메릴랜드주 Larry Hogan 주지사 인터뷰(9월 9일)**

메릴랜드주 주지사
Larry Hogan

콘텐츠 제목
'주지사에게 듣는다, 한-미 바이오 투자협력의 중요성과 미래'
주요내용
미국 4대 바이오 클러스터 중 하나인 메릴랜드주 주지사로부터 글로벌 바이오 공급망 강화를 위한 제언과 바이오 투자협력 중요성 논의

- **(뉴스구독)** 카카오톡에서 'KOTRA워싱턴' 검색 후 '채널 구독' 클릭